

# 최근 산업현안을 반영한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

2023. 2. 22.

관계부처 합동

# 목 차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추가보완 방향 ...	2
III. 추가지원 분야별 세부지원 내용 .....	3
1. 미래 유망신산업 지원 : +7조원(5개 분야) .....	3
2. 기존사업 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: +3조원(2개 분야) ..	8

## I. 추진 배경

- 정책금융의 산업전략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금융기관-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“정책금융지원협의회” 출범(‘22.12.14.)
  - 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산업전략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‘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발표(‘22.12.26.)

<‘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방향(12.26. 발표) 주요 내용>

- ◇ 어려운 경제여건 및 수출 등 산업정책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‘23년도 **총 공급목표액을 전년대비 대폭 증가(+11조원)한 205조원**으로 설정
- ◇ 새정부 산업정책을 반영한 **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**를 선정하고, 해당 분야에 ‘23년도 **공급목표액의 약 40%인 81조원**을 집중

구분	지원 목표	공급목표액
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	반도체 · 이차전지 ·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	15.6조원
② 미래유망산업 지원	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 · 경쟁력강화 지원	13.1조원
③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	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	17.3조원
④ 유니콘 벤처 · 중소 · 중견기업 육성	성장잠재력 높은 벤처 ·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	9.0조원
⑤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	3高 현상,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	26.4조원

- 기발표한 자금공급 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
  - 수출 활력제고, 전략적 해외진출 등 최근의 산업현안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
- ⇒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책금융 지원 대상 산업, 부문을 추가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보완계획을 마련함

## II.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추가보완 방향

- ◇ 수출 활력제고 및 전략적 해외진출, 신규발표 산업정책 등 최근 산업현안 과제를 반영하여 **총 7개 지원분야**를 추가 발굴

추가분야	주관부처	선정 사유
항공우주	산업부	■ 新성장 4.0 15대 프로젝트 과제
탄소소재	산업부	■ 항공우주,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관련 핵심소재
양자기술	과기부	■ 12대 국가전략기술(AI 등 첨단산업 핵심기술)
방위산업	방사청	■ 수출활력 제고(방산수출 활성화)
농식품신산업	농림부	■ 新성장 4.0, 전략적 해외진출(스마트팜)
플라스틱	산업부	■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추진전략 관련 핵심과제
시멘트	산업부	■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추진전략 관련 핵심과제

- 7개 부문을 추가 반영하여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을 기존 **81조원에서 91조원**으로 확대

- 부처별 핵심사업 맞춤 공급액도 **22조원에서 26조원**으로 확대

신규 추가 산업/부문

5대 지원전략 : 총 91조	해당부문 및 지원규모
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(16조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반도체(2.8조) · 디스플레이(0.9조)</li> <li>이차전지(5.3조) · 미래차(3.5조)</li> <li>원전생태계(3.0조)</li> </ul>
미래유망산업 지원 (20조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바이오헬스(3.9조) · 나노소재(1.4조)</li> <li>수소생태계(1.1조) · ICT 신산업(3.1조)</li> <li>미디어/컨텐츠(0.5조)</li> <li>해양수산신산업(0.7조)</li> <li>국토교통신산업(1.6조)</li> <li>항공우주(0.3조) · 탄소소재(1.3조)</li> <li>양자기술(0.04조) · 방위산업(3.1조)</li> <li>농식품신산업(2.2조)</li> </ul>
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(20조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동차 내연부품(5.4조)</li> <li>조선 및 기자재(2.7조)</li> <li>철강(3.6조) · 섬유(2.9조)</li> <li>정유(1.5조) · 항만(0.2조)</li> <li>광학(0.3조)</li> <li>탄소중립-플라스틱(2.1조)</li> <li>탄소중립-시멘트(1.0조)</li> </ul>
유니콘 중소·중견 육성 (9조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초격차 스타트업 1000</li> <li>아기유니콘 / Pre-ICON</li> <li>예비유니콘/ 혁신-ICON</li> <li>월드클래스 중견기업</li> </ul>
대외여건 악화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(26조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변동 완충 경영안정자금</li> <li>3고 현상 관련 기업피해경감</li> <li>수출애로기업 경영지원</li> </ul>

### Ⅲ. 추가지원 분야별 세부 지원내용

#### 1 미래 유망신산업 지원 : +7조원(5개 분야)

##### (1) 항공우주산업 : 0.3조원

###### 가. 지원목표

- 글로벌 항공시장 회복\* 및 미래항공모빌리티(UAM/AAM\*\*) 등 신시장 창출에 대비하여 항공생태계의 선제적인 경쟁력강화 지원

\* 글로벌 민항기 시장은 '21년 1,663억불 → '30년 3,757억불로 성장전망 (항공우주협회)

\*\* 도심공항을 기반으로 대중교통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다용도 항공기체를 의미. 시장규모는 '30년 3200억불 → '40년 1.5조불로 성장 전망

- (부품) 핵심기술 국산화 및 생산설비 확충으로 단순조립 중심에서 대형구조품 중심\*의 글로벌 Top Value Chain으로 성장 추진

\* 항공산업 생태계는 완제기-대형구조품(Tier1)-복합부품(Tier2)-단위부품(Tier3)으로 구성

- (완제기) 향후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국산 민항기\* 제작이 가능한 기술경쟁력 및 선제적 시장확보 추진

\* 글로벌 민항기시장은 Boeing, Airbus 등 소수 글로벌기업이 과점중이며 국산브랜드 전무

###### 나. 세부 지원전략

- 항공우주산업 전반적으로 총 2,800억원\*을 공급하고, 이 중 부처 핵심사업(산업부 : 글로벌 Top GVC 진입)에 2,200억원\*\*을 우선 투입

\* [산업전체 공급 목표] 산은 1600억 / 기은 700억(대출) / 신보 500억(보증)

\*\* [부처핵심사업] 산은 1400억 / 기은 700억(대출) / 신보 100억(보증)

- 항공부품업체의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생산설비 확충 및 기술 국산화를 위한 R&D 자금 지원

- 국내 부품업체의 글로벌 민항기 공동개발(RSP\*) 사업 참여를 위한 생산용량 확충 및 자본확충 지원

\* 글로벌 민항기 제작사와 제휴하여 장기간 부품 생산물량을 위탁받는 프로젝트

###### [정책금융기관별 주요 지원가능상품]

-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(산은) : 설비투자 · R&D · 운영자금 금리우대(최대 △0.6%p)
- 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(기은) : 운전 · 시설자금대출 금리우대(최대 △1%p)

## (2) 탄소소재 산업 : 1.3조원

### 가. 지원목표

- 미래첨단산업의 핵심소재인 탄소소재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여 첨단산업 생태계의 종합발전 도모

\* 글로벌 탄소소재·부품시장 규모 : (‘21년)137조원 → (‘30년<sup>o</sup>)1,070조원

- 고성능 탄소소재 기술력\* 확보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유도

\* 국내기업은 탄소소재 범용기술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없으나 고성능 탄소소재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50~80% 수준에 불과

<참고 : 탄소소재의 종류 및 주요 응용분야>

탄소소재 종류	기술력 수준	주요 응용분야
탄소섬유	초격차국(日) 대비 75~100%	■ 우주항공(경량·고성능 소재)
인조흑연	초격차국(美, 日) 대비 50~75%	■ 이차전지(음극재)
활성탄소	초격차국(日) 대비 40~90%	■ 전기로(전극봉)
카본블랙	초격차국(美, 日, 獨) 대비 50~100%	■ 풍력발전(블레이드)
탄소나노튜브	초격차국(獨) 대비 80~100%	■ 필터(미세먼지 흡착)
그래핀	초격차 기달성	

### 나. 세부 지원전략

- 탄소소재산업 전반적으로 **총 1.3조원\***을 공급하고, 이 중 부처 **핵심사업**(산업부 :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)에 **4,100억원\*\***을 우선 투입

\* [산업전체 공급 목표] 산은 7700억(대출) / 기은 400억(대출) / 신보 5000억(보증)

\*\* [부처 핵심사업] 산은 2700억(대출) / 기은 400억(대출) / 신보 1000억(보증)

- 국내기업의 프리미엄 탄소소재 핵심기술 개발 및 신규응용 제품 창출을 위한 R&D 자금 융자지원
- 국내기업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위한 생산설비 증설 및 신제품 검증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지원

#### [정책금융기관별 주요 지원가능상품]

- 소부장산업 지원대출(산은) : 설비투자·R&D·운영자금 금리우대(최대 △0.5%p)
- 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(기은) : 운전·시설자금대출 금리우대(최대 △1%p)
-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보증(신보) : 보증비율 우대(90%), 보증료 차감(최대 △0.2%p)



### (3) 양자과학기술 : 0.04조원 + @

#### 가. 지원목표

- 初디지털 사회 핵심기술인 양자과학기술 연구활성화·사업화를 지원하여 반도체, AI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지위 달성 도모

\*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시장 규모 : ('22년)8.6조원 → ('30년<sup>e</sup>, Mckinsey)101조원

#### <참고 : 양자과학기술의 특성 및 주요 활용분야>

- ◇ 양자과학기술은 초미세입자의 양자물리적 특성을 전자·정보통신 분야에 접목시키는 기술로서 현재의 "디지털" 기반 IT기술을 초월하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

- AI·컴퓨터(초고속 연산), 양자통신(해킹차단), 센서(초정밀탐지) 등에 활용



#### 나. 세부 지원전략

- 양자과학기술 분야 부처 핵심사업(과기부 : 양자과학기술 육성 지원)에 대하여 **최소 400억원\***을 지원\*\*

\* 신보 200억(보증) / 기술·R&D 전용 정책펀드를 통한 투자지원 200억

\*\* 상기 지원규모 이외에 양자기술 응용분야(컴퓨터·통신·센서 등) 기업에 대한 대출을 별도로 지원

- 양자과학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기업에 대하여 R&D자금 보증(신보) 또는 정책펀드\*를 통한 투자자금 지원

\*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한 R&D·기술혁신 전용펀드(예:기술혁신펀드, GIFT 펀드) 활용

- 양자컴퓨터, 양자통신, 양자센서 등 양자과학기술 활용 기업의 양자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발주자금에 대한 융자, 보증 지원

#### [정책금융기관별 주요 지원가능상품]

- 보증상품(신보) : 200억원
- 기술혁신펀드(성장금융 운영, 기은 출자) / GIFT R&D펀드(성장금융 운영, 기은·신한·KIAT 출자) : 양자기술연구 및 사업화 추진기업에 대한 투자지원

#### (4) 방위산업 : 3.1조원

##### 가. 지원목표

- 최근 전략수출산업으로 도약\*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 제고 및 생산증대 지원

\* 방위산업 수출수주액 : (21)73억불 (22)170억불

- '27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% 돌파 및 4대 방산수출국 달성

##### <참고 : 방위산업 생태계 및 금융이용수요 현황>

- ◇ (완제품 - 대·중견기업) 기동·화력(장갑차, 자주포, 기관총), 유도무기, 군용기, 지휘·정찰(통신장비, 레이더, 경계시스템) 등 생산

- 이 중 주력수출품목은 항공(FA-50), 화력(K-9 자주포) 등

※ '22년 폴란드와 K9자주포 등 124억불 규모 방산수주계약 체결

- ◇ (부품·중간재- 중소·중견기업) 무기제작에 사용되는 소재·부품·장비 등 생산

⇒ 주요 발주자가 정부여서 제작대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바, 타 산업에 비해 제작 금융(=무기 및 중간재 제작 비용을 융자받는 금융) 성사 비중이 높음

##### 나. 세부 지원전략

- 방위산업 전반적으로 **총 3.1조원\***을 공급하고, 이 중 부처 핵심사업(방사청 : 방위산업 수출전략 사업화)에 **1.4조원**을 우선 투입

\* 산은 3조원(대출, 부처핵심사업 1.3조원) / 기은 500억(대출) / 신보 300억(보증)

- 방산기업의 수출수주 물량 제작 등을 위한 생산설비 확충 및 전문인력 고용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

- 수출시장 다각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산기업의 미래 국방 핵심기술 개발\*을 위한 R&D 자금 지원

\* 8대 미래국방핵심기술('23년도 방사청 업무계획) : AI, 극초음속, 무인·자율, 고에너지, 미래통신, 우주, 합성생물학, 양자물리

##### [정책금융기관별 주요 지원가능상품]

- 미래핵심산업 지원대출(산은) : 설비투자·R&D 자금 등 금리우대(최대 △0.6%p)
- IBK강소기업대출(기은) : 운전·시설자금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(최대 △1%p)
- 소부장 경쟁력강화 보증(신보) : 보증비율 우대(100%), 보증료 차감(최대 △0.5%p)



## (5) 농식품 신산업 : 2.2조원

### 가. 지원목표

- 첨단기술(디지털·AI·로봇 등)과 농업의 접목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농업경쟁력 회복과 농식품 신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\* 지원

\* 세계 농식품 신산업(시장규모) : 그린바이오(1조2천억불 '20) 푸드테크(5,542억 '20) 스마트농업(161억 '22)

\* K-Food\* 수출액 규모(농식품+스마트팜·농기자재 등) : ('22년)118억불 → ('23년 목표) 130억불

#### <참고 : 농식품 신산업의 주요 분야 및 현황 >

구분	개요	주요 생산품목(분야)
스마트농업	첨단기술·장비를 활용한 새로운 농업생산기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밀농업</li> <li>정밀임업</li> <li>정밀축산</li> <li>스마트온실</li> </ul>
그린바이오	친환경·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농식품소재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생물(비료·농약·사료, 식품 등)</li> <li>대체식품 등</li> <li>디지털 육종 기술</li> <li>동물용의약품</li> <li>곤충·천연물 소재</li> </ul>
푸드테크	식품 생산·유통·소비 모든 단계 첨단 기술 활용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新식품(대체식품·간편식·케어푸드 등)</li> <li>식품제조(식품프린팅·생산공정 자동화 등)</li> <li>식품유통(농식품 온라인플랫폼)·처리</li> <li>외식서비스(주방·서빙·배달 로봇 등)</li> </ul>

### 나. 세부 지원전략

- 농식품 신산업 전반적으로 총 2.2조원\*을 공급하고, 이 중 부처 핵심사업(농림부 : 농식품 신산업 육성)에 8400억원을 우선 투입

\* [산업 전체 공급목표] 산은 5500억(대출) / 기은 1400억(대출) / 신보 1.5조원(보증)

\*\* [부처 핵심사업] 산은 4000억(대출) / 기은 1400억(대출) / 신보 3000억(보증)

- (스마트농업) 韓-UAE 기업 간 MOU\* 체결을 계기로 중동, 아시아 등에 스마트팜 시설·기자재·SW 등의 수출 가속화 추진

\* 국내 스마트농업 3개사가 5,600만불 규모의 스마트팜(딸기농장 등) 설치·운영 계획

- (그린바이오/푸드테크) 핵심 기술·소재 고도화\* 및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 제품 양산을 위한 생산설비 투자 확대

\* (그린바이오) 마이크로바이옴, 디지털육종, 바이오사료·농약·비료, 동물용의약품, 발효산물 소재 개발, 기능성원료 품질·안전기술 등  
(푸드테크) 세포배양식품 생산, 식물기반식품 제조, 식품프린팅, 스마트 제조·유통, 식품 업사이클링, 조리·서빙·배달 로봇, 친환경 식품포장 등

#### [정책금융기관별 주요 지원가능상품]

-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(산은) : 설비투자·R&D 자금 등 금리우대(최대 △0.6%p)
- IBK강소기업대출(기은) : 운전·시설자금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(최대 △1%p)
- 녹색산업 영위기업보증(신보) : 보증비율 우대(90%), 보증료 차감(최대 △0.1%p)

### 3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: +3조원(2개 분야)

#### (1) 플라스틱 탄소중립 이행 : 2.1조원

##### 가. 지원목표

- 국가적인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이행전략\*에 맞추어 플라스틱 생산구조를 '저탄소 순환형'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투자 지원

\* '탄소중립·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(22.10.26)' : 2030년 NDC(국가 탄소배출 감축목표) 달성 및 2050 넷제로(탄소순배출 0)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발표

※ [플라스틱 산업의 제조업내 비중, '21년] 고용 : 24만명(5.5%), 부가가치 19.9조원(3.6%)

##### <참고 : 플라스틱 탄소중립 4대 핵심기술>

구분	추진전략	핵심기술
저감	■ 플라스틱 포장재에 소요되는 원료량 감축	다운사이징, 내구성 향상
재이용	■ 일회용 제품의 다회용 전환	제품 강도 및 내구성 향상
대체	■ 원료를 바이오 등 친환경 재료로 전환	유니소재 및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디지털 공정 개발
재활용	■ 플라스틱 폐기물을 원료로 재사용	폴리머, 첨가제 및 제품특성화 기술 개발

##### 나. 세부 지원전략

- 플라스틱 분야 전반적으로 총 2.1조원\*을 공급하고, 이 중 부처 핵심사업(산업부 :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)에 0.44조원\*\*을 우선 투입

\* [산업 전체 공급목표] 산은 9500억 / 기은 1500억 / 신보 1조원

\* [부처 핵심사업] 산은 900억 / 기은 1500억 / 신보 2000억

- (R&D) 제품 경량화, 내구성 확대, 신소재(유니소재 등) 개발,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자금 지원
- (시설자금) 탄소중립 기술을 구현한 디지털·스마트 생산설비 신규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

##### [정책금융기관별 주요 지원가능상품]

- KDB 탄소스프레드대출(산은) : 탄소중립 구현목적 자금에 금리우대(최대 △2.6%p)
- ESG경영 성공지원대출(기은) : 탄소중립 구현목적 자금에 금리우대(최대 △1.3%p)
- 녹색산업 영위기업보증(신보) : 보증비율 우대(90%), 보증료 차감(최대 △0.1%p)

## (2) 시멘트 탄소중립 이행 : 1.0조원

### 가. 지원목표

- 국가적인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이행전략\*에 맞추어 시멘트 생산구조를 탄소저감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\*\* 지원

\* '탄소중립·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(22.10.26)' : 2030년 NDC(국가 탄소배출 감축목표) 달성 및 2050 넷제로(탄소순배출 0)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발표

\*\* 시멘트업계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및 R&D 추진 예정

#### <참고 : 시멘트생산 탄소저감 주요 핵심기술>

구분	기술내용
연료전환	■ 기존의 유연탄 대신 폐합성수지, 수소 및 바이오매스 활용도 증대
원료전환	■ 주원료인 석회석을 비탄산염 원료 및 혼합재로 일부 대체
에너지효율화	■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
포집(CCUS)	■ 시멘트 양산시 발생하는 CO <sup>2</sup> 를 포집하여 원료생산에 재활용

### 나. 세부 지원전략

- 시멘트 산업 전반적으로 총 1.0조원\*을 공급하고, 이 중 부처 핵심사업(산업부 : 시멘트 탄소중립 지원)에 4000억원\*\*을 우선 투입

\* [산업 전체 공급목표] 산은 4700억 / 기은 3000억 / 신보 2000억

\* [부처 핵심사업] 산은 800억 / 기은 3000억 / 신보 200억

- 생산공정의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대체, 친환경 연료사용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
- 안정적 시멘트 수급을 통한 건설원가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료광산(석회석) 개발, 운송수단 개량 등도 병행지원

#### [정책금융기관별 주요 지원가능상품]

- KDB 탄소스프레드대출(산은) : 탄소중립 구현목적 자금에 금리우대(최대 △2.6%p)
- ESG경영 성공지원대출(기은) : 탄소중립 구현목적 자금에 금리우대(최대 △1.3%p)
- 녹색산업 영위기업보증(신보) : 보증비율 우대(90%), 보증료 차감(최대 △0.1%p)